https://doi.org/10.14400/JDC.2017.15.2.511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한국 여대생의 반응 유형 및 특성

조정화*,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Korean Women's Response Type and Characteristics on Unwanted Sexual Request

Jung-Hwa Cho*,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요 약 본 연구는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여대생들의 반응 유형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 소재의 2개 대학 여대생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원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한 반응척도에서의 점수 분포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주장형'과 '순응형'의 두 집단을 구분하였다. 주장형에 비해 순응형의 성경험, 원하지 않은 성관계 응낙 경험이 많았고, 성관계 응낙의 동기가 높았다. 또한 순응형은 애착이 불안정하고, 거부민감성이 높고 외로움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원하지 않은 성관계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 교육 및 심리적 시사점과 개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 원하지 않은 성관계, 성적 대처, 성적 자기주장, 여자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ypology of response to unwanted sexual request, and find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s. For this purpose, 332 college female students were surveyed. As a results, two group were identified through cluster analysis: assertive type and compliant type. Compliant type had more sexual experiences, consensual unwanted sex, reasons for sexual compliance. Furthermore, compliant type had more unstable attachment, rejection sensitivity, and loneliness. Implications related with prevention and education program for the high risk compliant group were discussed and ideas for health, education, psychological experts were suggested.

Key Words : Unwanted sexual request, Consensual unwanted sex, Sexual coping, Sexual assertiveness, Female college student

1. 서론

성행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충동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서로의 동의하에 상호간의 친밀감을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합의된 성관계가 있는 반면, 서로간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형태의 성관계가 발생하여 신체적, 심리

Received 2 January 2017 Revised 2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Email: 1058@paran.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적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합의와 강제는 일견 이분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 한 쪽 끝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다면 다른 쪽 끝에는 성폭력이 놓이게 된다. 이 연속선 사이에는 합의여부가 애매하여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지만 오랫동안의 불편감을 야기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성관계가 싫지만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는 합의했으나 내면적으로는 거부하는 것으로, 이를 원하지 않은 성관계(consensual unwanted sex)라고 정의한다[1, 2].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은 이성교제 관계에서 한쪽 파트너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성적 흥미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에게 거절을 하지 못하고 "예"를 표시하는 상황을 말한다[3]. 대학생들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는 많은 대학생들이 이성교제 도중 한 번 이상 '원하지 않은 성관계 응낙'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4,5].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한다.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성병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6]. 심리적으로는 성 경험 후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가치가 하락하고 훼손당한 듯한 느낌, 자신이 희생자가 된 듯한 생각, 자신에 대한 실망, 자존감의 손상과 같은 불편감을 보고한다[3]. 이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성폭력을 3배 이상 많이 경험하고,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높아지며 장기적으로는 약물이나 알콜 섭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7,8,9].

따라서 이러한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를 아는 것은 이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개는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성적 자기주장(sexual assertiveness)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곤 한다. Lee[11]는 성적 자기주장과 성적 자기 등의 개념을 통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개인에게 부여되는 성과 관련한 행복추구권'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인 자율성이 내재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로서, 원치 않는 성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상황을 분별하거나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11].

성적인 요구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Patricia 등[12]은 성적 자기주장 척도(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를 개발하면서 이를 주장, 거부, 방어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었다. 주장 요인은 데이트나 성적 접촉 상황에서 성적인 접촉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거절 요인은 상대와의 성적 접촉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것이며, 방어요인으로서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은 성교 시 피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구성되었다[13]. SAS가 다양한 상황에서의 성적 자기주장을 측정하였다면, Yoo[14]는 O'Sullivan과 Byers[15]의 척도를 참조하여 원하지 않은 성관계 상황에서 여대생들이 대처하는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나누어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거절, 무시, 설득, 순응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쓰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유형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어서 거절을 하는 사람이 동시에 무시를 사용하거나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설득하는 등의 행동 패턴이 공존하여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떠한 반응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할 때, 각 개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성적 자기주장이 아니라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여자 대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이 실제 어떤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각 유형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각 유형에 따라 우선 기존 연구에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실제 성경험 및 원하지 않은 성경험의 빈도가 다른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는 간호학이나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일차적인 교육대상을 선별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성관계 응낙의 이유가 유형에 따라 다른지를 파악할 것인데, 이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에 따라 거절 민감성, 애착, 외로움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적인 연구에서 자신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심리적 취약성으로 인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며, 상담을 통해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방법

2.1 참가자

서울 소재의 4년제 A대학교와 중부권 소재의 4년제 B대학의 여대생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해당 대학의 교과목 교수의 협조를 통해 수업시간에 설문에 대한 안내와 배포, 수거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검토 결과 문항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하나의 척도를 모두 한 번호로 응답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326명의 설문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여학생으로 나이는 만 18세 - 26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나이는 20.8(SD=1.59)세였다.

2.2 측정도구

2.2.1 원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한 반응 척도 (Response to Unwanted Sex Scale)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반응 질문지는 O'Sullivan과 Byers[15]가 제작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참조하여 Yoo[14]가 수정, 제작한 척도이다. 문항은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가 원하지 않은 성행위(애무, 구강성교, 또는 삽입성교)를 요구하였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경험 있는 분들은 대처하였던 방식들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대처할 방식들에 표를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대처방식은 'no'라고 분명히 말하기, 상대방의 신호를 무시하기,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설득하기, 그냥 성관계에 응하기의 4가지로 나뉘어지며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항목을 거절, 무시, 설득, 순응으로 명명하였다.

2.2.2 성경험 여부

성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일생에 걸쳐 현재까지 성교 경험(삽입성교)이 있었는지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응답한 325명 중 136명(41%)가 성경험이 있었고, 189명(56.9%)가 성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2.3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척도 (Consensual Unwanted Sex Scale)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낙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Impett와 Peplau[3]가 제작하고, Yoo와 Park[16]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자신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파트너의 성적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응했는지를 대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는 과거의 파트너와의 관계나 가상적인 상황을 떠올려 대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과의 성적인 접촉을 원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혹은 피로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파트너의 성적 요구에 별로 응하고 싶지 않았을 경우에 파트너의 요구(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가 있을 때마다 당신은 어느 정도 응했는지를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다.

응답자들은 세 가지 종류의 성행동(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 각각에 대한 파트너의 성 접촉 요구에 응낙한 정도를 '전혀 응하지 않았다(1)'에서 '언제나 응했다(7)'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소 3점에서 최대 2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Yoo와 Park[16]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전체 .79, 남자 .81, 여자 .69였으며, Son[17]의 연구에서의 .86,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경우 전체항목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2.2.4 성관계 응낙 동기 질문지 (Reasons for Sexual Compliance Questionnaire)

성관계 응낙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Impett와 Peplau[3]가 제작하고, Yoo와 Park[16]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척도는 접근, 호기심, 회피의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계 응낙 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접근에서 .76, 호기심에서 .79, 회피에서 .77로 나타났다.

2.2.5 거부민감성 척도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8]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질문지(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국내에서 이복동[19]이 번안하고 타당

화한 한국판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중요한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18가지 상황을 제시한다. 이 18가지 상황(예: 친구에게 어떤 물건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다)은 다시 '자신의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걱정'하는(예: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정도 및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예: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 것이라 예상된다) 정도를 묻는 2가지 내용의 질문으로 각각 제시되어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거부민감성 총 점수는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수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도를 역채점한 점수를 먼저 구한 뒤, 각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걱정'하는 점수에다가 역채점을 통해 거절에 대한 기대로 바꾼 점수를 곱하고, 곱하여 나온 18개 상황의 점수를 모두 합한 뒤 18로 나눈 값이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36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Downey와 Feldman[18]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이복동[19]의 연구에서는 .8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 전체항목의 내적신뢰도(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다.

2.2.6 불안정 성인애착 척도 (The Korean version of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K)

불안정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와 Brennan[20]이 개발한 친밀한 관계 경험-개정판(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R; ECR-R)을 Kim[21]이 번안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화한 ECR-R 한국어판(ECRR-K)을 사용하였다.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이며, 각 문항은 친밀한 대인관계에서의 경험에 대해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Brennan 등[22]은 애착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라는 두 하위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불안(Anxiety)애착은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관계에서 버림받음, 거부당함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측정한다. 회피(Avoidance)애착은 타인들과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꺼리는 정도를 측정한다. 각 소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회피의 수준이 높은 것이고, 이는 애착이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소척도 각각에서 18~126점이다. Kim[21]의 연구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불안애착이 .89, 회피애착이 .85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93, 불안애착은 .92, 회피애착은 .91로 나타났다.

2.2.7 UCLA 외로움 척도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와 Ferguson[23]이 제작하고 이후 Russell, Peplau와 Cutrona[24]가 개정한 UCLA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Kim과 Kim[25], Kim[26]이 우리 문화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화였다. 척도는 외로움을 단일 차원으로 간주하고 총 20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Russell 등[24]의 연구에서 .84, Kim[27]의 연구에서 .88, 본 연구에서는 .94으로 각각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대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한 후,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여 K-means 분석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였다.

둘째,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성경험 유무에 대하여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이외의 변인들에 대하여는 t-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3. 결과

3.1 유형 분류를 위한 군집분석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반응을 유형화하기 위해 거부, 무시, 설득, 순응의 네 가지 반응에 대한 응답 점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거부와 설득의 왜도가 각각 -1.21, -1.14로 부적 편포를 이루었고, 순응의 경우 1.91로 정적 편포를 이루었으므로 모든 점수를 표준화점수로 변환하였다. 변환한 표준화점수를 변수로 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덴드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그 모양과 숫

자에서 2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K-Means 분석을 통해 군집의 수를 2개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은 두 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 1은 거부와 무시, 설득을 적게 하는 반면 순응 점수가 높아 순응형이라 명명하였고, 군집 2는 거부, 무시, 설득의 점수가 높아 주장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Table 2>)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sult of Cluster Analysis

	cluster	
	1 (n=106)	2 (n=220)
reject	-1.00555	.47721
ignore	-.53614	.26219
persuade	-.77710	.36621
comply	.88508	-.42645
naming	compliant	assertive

〈Table 2〉 Difference between the Clusters

	cluster		error		F
	MS	df	MS	df	
reject	157.271	1	.520	324	302.523***
ignore	45.590	1	.863	324	52.814***
persuade	93.506	1	.716	324	130.669***
comply	123.045	1	.623	324	197.403***

***p<.001

3.2 유형에 따른 특성

두 집단의 성 관련 변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경험은 순응형에서 61.0%, 주장형에서 32.7%로 나타나 순응형의 성경험이 주장형의 거의 2배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 경험 역시 순응형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t=8.322, p<.001). 원하지 않은 성관계에 순응하는 동기 역시 접근(t=2.704, p<.01), 호기심(t=2.456, p<.05), 회피(t=3.367, p<.001) 모두 순응형에서 의미있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of Sex 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the Clustered Groups

	compliant type (n=106)	assertive type (n=220)	t (χ^2)[1]
sexual experience(yes)	64 (61.0%)[2]	70 (32.7%)[2]	-4.970***
unwanted sexual relationship	8.64 (4.57)	5.11 (3.01)	8.322***
reason for sexual compliance - approach	13.25 (3.35)	12.09 (4.16)	2.704**
reason for sexual compliance - curiosity	7.26 (3.10)	6.40 (2.93)	2.456*
reason for sexual compliance - avoidance	11.12 (4.92)	9.23 (4.68)	3.367*
rejection sensitivity	8.54 (3.80)	7.58 (3.32)	2.310*
anxious attachment	7.26 (3.10)	6.40 (2.93)	1.907†
avoidant attachment	11.12 (4.92)	9.23 (4.68)	1.902†
loneliness -lack of intimacy	18.87 (3.46)	18.11 (2.84)	2.098*
loneliness -lack of social support	8.13 (1.43)	8.07 (1.47)	.0377(NS)
loneliness -lack of engagement	6.91 (1.15)	6.64 (1.14)	1.992*

†p<.10, *p<.05, **p<.01, ***p<.001
1) Chi-square analysis for sexual experience, t-test for others.
2) Frequency for sexual experience, SD for others.

심리적 변인에서의 차이로는 거절민감성이 순응형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t=2.310, p<.05), 애착의 경우 불안애착(t=1.907, p<.10)과 회피애착(t=1.902, p<.10) 모두에서 의미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순응형이 더 불안정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의 경우 순응형이 친밀감 결핍(t=2.098, p<.05), 소속감 결핍(t=1.992, p<.05)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 결핍(t=.0377, NS)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논의

본 연구는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한국 여대생의 반응을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고, 군집분석을 통해 순응형과 주장형의 두 가지 유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파트너 사이에서의 안전한 성적 협상에 대하여 세 가지 유형을 나누어 설명하는 연구자들의 입장과 일치한다

[14]. 세 가지 유형의 첫째는 데이트강간이나 부부강간이고, 둘째는 거부나 무시, 설득이며, 셋째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둘째와 셋째 유형이 바로 본 연구에서의 주장형과 순응형을 지칭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다. 본래 O'Sullivan과 Bayers[15]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거절, 무시, 설득, 순응의 네 가지 대처 방식 중 거절, 무시, 설득을 주로 사용하는 유형과 순응을 주로 사용하는 유형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거절과 무시, 설득이 모두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자기주장을 하는 여러 표현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성적 자기주장을 위한 교육에서는 자기 주장의 방법으로 '거절하기', '무시하기', '설득하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적절히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또한 '순응' 이외의 대처방법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된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형에 따른 성행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장형보다 순응형에서 성경험이 거의 두 배가 많았고, 원하지 않은 성경험의 비율도 훨씬 높았다. 이는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에서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미 더 많은 성경험과 원하지 않은 성관계 응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적 자기주장이 낮은 사람들이 위험한 성행동에 빠지기 쉽다는 다른 연구자들의 보고[1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원하지 않는 성경험을 하거나 기존에 했던 성경험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순응도를 높였는지를 검토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는 향후 종단적인 연구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성관계 응낙의 이유에서도 순응형은 주장형보다 모두 의미있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접근과 회피의 동기가 더 높은 것은 심리적인 특성의 분석에서 거부민감성이 높거나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에서 더 불안정한 애착 점수를 보인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불안정한 애착이 거부민감성을 높이고[27], 이는 다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상황에서도 파트너와 더 친밀해지고 싶다는 접근동기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다는 회피동기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도 몇몇 연구에서는[16,17] 애착, 자존감, 성적 자기주장, 성관계 권력, 관계몰입과 같은 심리학적 변인들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 응낙에 미치는 과정들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들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되, 각 유형에 따라 모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외로움의 측면에서는 순응형이 친밀감 결핍과 소속감 결핍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사회적 지지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외로움이 많을수록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관계를 해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서적인 위험 요인을 보다 다양하게 파악하여 대학 학생상담소 등을 통한 예방적인 접근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겠다. 원하지 않은 성관계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임신 등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호학 등의 분야에서 조기 개입이나 일차 예방의 대상을 선정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겠다. 직접적으로는 순응적인 대처를 하는 대학생이며, 심리적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나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일 수 있겠다. 특히 여대생의 경우 설문조사에서도 대학 졸업시에 약 50%의 비율이 성경험을 하는 것을 참고한다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겠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 및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포함할 수 있겠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성과 관련된 행복 추구권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참고하면[10],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에 대한 교육 주제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학 영역에서는 원하지 않은 성관계 응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불안정애착, 거부민감성, 외로움, 자아존중감 등을 향상시키도록 개입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에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러한 주제의 프로그램들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성적인 위험행동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이차적 문제의 심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다. 특히 순응형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성적인 응낙 동기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자신의 심리적인 결핍과 문제점들을 대인관계에서의 집착이나 성적인 호기심으로 대체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심리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성적인 공상(sexual fantasy)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28]에서 이러한 가능성들을 보다 더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전국적인 표본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한 대학으로 이루어진 점이 있겠다. 두 학교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자가에서 지내거나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에 이 결과를 확대하는 것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또한 두 집단의 특성이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술적인 특징일 뿐 인과관계에 대해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설정 및 종단적인 접근 등을 통해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반응과 그 영향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여자 대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유형화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그 유형에 따른 특징들을 설명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REFERENCES

[1] B. Krahe′, R. Scheinberger-Olwig, & S. Koplin (2000). “Ambiguous communication of sexual intentions as a risk marker of sexual aggression”. Sex Roles, 42, pp. 313-337

[2] R. L. Shotland, & B. A. Hunter (1995). “Women′s Token Resistant and Compliant sexual Behaviors are Related to Uncertain Sexual Intentions and Rap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pp. 226-236.

[3] E. A. Impett, & L. A. Peplau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0(1), pp. 87-100.

[4] L. Y. Bay-Cheng, & R. K. Eliseo-Arras, (2008). “The Making of Unwanted Sex: Gendered and Neoliberal Norms in College Women′s Unwanted Sexual Experiences”. Journal of Sex Research, 45(4), pp. 386-397. 8

[5] Reneau, S. E., & Muehlenhard, C. L. (2007). “Unwanted consensual sexual activity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6] L. F. O’Sullivan, S. Hoffman, A. Harrison, & C. Dolezal (2006). “Men, multiple sexual partners, and young adults’sexual relationships: understanding the role of gender in the study of risk”. Journal of Urban Health, 83(4), pp. 695-708.

[7] P. L. Erickson, and A. J. Rapkin. 1991. “Unwanted sexual experience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319

[8] Testa, Jennifer, Livingstone, Kenneth & Leonard, (2003). “Women′s substance use and experi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among a community sampl”e. Addictive Behavior 28(9) 1649-64

[9] S. M. Park, W. Song (2012). “The Effects of Rape Myth and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to the Sexual Assertiveness in College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7. No. 2, 265-280.

[10] E. J. Lee (2015).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in Psychological Studie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20, No. 3. 427-441

[11] J. E. Lee & E. S. Lee. (2005)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7, No. 2 419-436

[12] J. M. Patricia, Q. Kathryn, L. H. Lisa, W. Laura, M. G. Diane, R. G. Pamela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13] M. H. Choi (2004).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Yonsei University Master′s Degree Dissertation.

[14] O, S. Yoo (2004). “Sexual Interactions between Dating Couple -Saying ″yes″, but thinking ‘no’”. paper presented at 2004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15] L. F. O’Sullivan, & E. S. Byers (1996). “Gender differences in responses to discrepancies in desired level of sexual intimacy”.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8, 49-67.

[16] O. S. Yoo, P. Park, (2004). “An Explanatory Model

of Unwanted Sexual Compliance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6, No. 4, 793-812

[17] S. Y. Son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consent to unwanted sex: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Ewha University, Master's degree Dissertation

[18] G. Downey, & S. Feldman (1996). "The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pp. 1327-1343.

[19] B. D. Lee (2000). "Adult attachment and Partner Relationship Satisfaction". Korea University, Master's degree Dissertation.

[20] R. C. Fraley, N. G. Waller, & K. A. Brennan (2000). "An item-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21] S. H. Kim (2004).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2] K. A. Brennan, C. L. Clark, & P. R. Shave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23] D. Russell, L. A. Peplau, & M. L. Ferguson (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290-294

[24] D. Russell, L. A. Peplau, & C. E. Cutrona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te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25] K. H. Kim, & J, H, Kim (1989). "Korea UCLA Loneliness Scal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16, 13-30.

[26] O. S. Kim (1997).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Korean immigra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10, No. 2. 311-321.

[27] E. S. Kim, W. K. Woo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Consensual Unwanted Sex of Female College Students". paper presented at 2015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Report. 310.

[28] N. R. Sin, W. Song (2015).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Double-sidedness of Sexual Fantasy: focused on disability, crime and treat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 339-351.

조 정 화(Cho, Jung Hwa)



- 2014년 2월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문학사)
- 2006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석사 수료)
- 관심분야 : 심리, 성폭력, 중년기 발달
- E-Mail : 1058@paran.com

송 원 영(Song, Won young)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철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심리, 범죄, 청소년, 가족
- E-Mail : 1058@paran.com